■여수 화재참사 풀리지 않는 의문점 4가지

CCTV 녹화시간 왜 차이 나나?

2·3층 모니터 기록시간 달라

화재 장면을 촬영한 CCTV 녹화시간이 제각각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불이 난 청사 3층 6개 보호실에 CCTV가 각각 한 대, 'ㄷ'자형 복도에는 대각선 방향으로 2대 등 모두 8대가 작동되고 있었다. 촬영된 영상은 3층 중앙에 위치한 감시실 모니터와 2층 상황실에서 모니터에 녹화된다. 하지만 3층과 2층 모니터의 기록시간이 다르다. 김명식(39·조선족·사망)씨가 지난 10일 오후 11시20분께부터 4차례나 304호실 CCTV에 물 젖은 화장지를 부착한 시간과 화재 발생시간도 각각 다르게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창 열쇠 왜 안 가지고 갔나

화재를 처음 목격한 근무자들은 3개의 소화기를 들고 초기진화를 시도했으나 보호실 앞에 설치된 철창 열쇠가 있지 않아 접근하지 못했다. 화재 소식을 접한 2층 상황실 직원들이 쇠창살 문 열쇠를 처음부터 갖고 올라가지 않고 초기 진화에 나섰다가 다시 내려가 열쇠를 가져왔다. 그러나 불은 이미 번졌고, 우레탄 매트 등에서 발생한 유독가스를 마신 보호인들은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 이 부문에서 2층 근무자들이 처음부터 왜 열쇠를 갖고 올라가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2년전에도 불 왜 개선 안했나

지난 2005년 4월22일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러시아인이 라이터로 불을 냈지만, 자체 진화됐다. 당시 법무부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화재 경계 공문도 발송했다. 그러나 사무소 측은 스프링클러 설치 등 소방시설에 대한 개선이 없었고, 소방훈련 등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화재 원인이 수용자의 방화로 드러날 경우 라이터 등 인화물질 반입에 대한 허술한 검색절차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CCTV 휴지 부착 왜 그냥 뒀나

김씨는 수용 후 몇 차례 같은 행동을 하다가 독방에 들어가기도 했다. 직원들은 이날도 김씨가 전과 비슷한 행동을 한다고 착각, 제지를 하지 않았다. 직원들은 세차례에 걸쳐 휴지를 뜯어 냈으나 새벽 3시 51분 김씨가 또다시 휴지를 붙이자 이를 내버려 뒀다가 8분후에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다.

한 직원은 "김씨가 잠들면 CCTV에 붙인 휴지를 제거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옌펑란 주한 중국 총영사가 12일 여수 출입국사무소 화재 희생자의 분향소가 마련된 여수 성심병원을 찾아 헌화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BIE 실사 2개월도 안 남았는데…화재 참사

여수 박람회 유치 '악재' 되나

지난 11일 발생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참사가 2012년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결정에 혹여 '악재'가 되지 않을까 관계자들이 걱정하고 있다.

더욱이 오는 4월 9일~13일 실시되는 세계박람회 사무국(BIE)의 개최 신청지 현지 실사를 2개월도 채 남겨놓지 않는 시점에서 터진 이번 사고 때문에 여수의 국제적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되고 있다. 박람회 관계자들은 범국가 차원의 유치 열기가 아직은 미지근한 상태에서 이번 사고가 점차 틀을 잡아가고 있는 유치 작업에 찬물을 끼얹지나 않을까 마음을 졸이고 있다.

전남도와 여수시 관계자들은 참사 소식에 매우 안타까워하면서도 "지난 8~9일 국제행사로 개최된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심포지엄 기간에 사고가 터졌다면 무슨 상황이 벌어졌을 지 상상하기도 싫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

화재참사가 벌어지자 여수시 분위기는 크게 침체된 상태다. 오현섭 여수시장은 12일 대책회의를 통해 "2012 박람회라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이번 참사가 터졌다"며 "국익을 먼저 생각하고 외신 등 대외적인 이미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 관계자도 "화재 참사와 2012 박람회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도시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여수의 인지도나 이미지가 한창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특히 관계자들은 이번 사고로 인권문제가 불거져 BIE 실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BIE가 실사하는 14개 항목 61개 세부사항에 국내 정치·사회적 환경 분야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고 원인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고, 외국인 희생자들의 피해를 원만하게 수습하는 것이 실추된 국가와 여수 이미지를 회복하는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광주일보 2007 테마

이젠 實利다

<12> 구직난 속 구인난, 눈높이 낮추자

'알짜' 중소기업 많은데 왜 대기업에 매달리나

노동시장의 대표적인 불일치 가운데 하나가 '구직난속의 구인난'이다. 청년실업이 사상 최고에 달할 정도로 직장 구하기가 어렵지만 중소기업들은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속을 태우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이 10.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광주의 경우 구직난속의 구인난이 훨씬 심각하다. 한쪽에서는 대기업과 공기업, 공무원 시험에 '올인'하는 취업 4~5수생 대학 졸업자를 찾기가 어렵지 않고 다른 한편에서는 구인광고를 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외국인 근로자로 간신히 공장을 돌리는 중소기업이 즐비하다.

광주지방노동청이 지난해 11월 전남대체육관에서 개최한 취업박람회의 일종인 '2006 잡 페스티벌'. 당시 행사에 참가했던 기업체 인사담당자들은 "취업에 성공하려면 실력을 갖추든지 눈 높이를 낮추라"고 주문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 청년실업률 전국 가장 높아

전남대 등 대학가 주변은 공무원 준비생을 위한 고시학원에 점령당한지 이미 오래다. 지난해 전남도청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이모(32)씨는 "대학 같은 학과 남자친구 12명 가운데 아직도 절반가량이 공무원 준비에 매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 하남산단에 있는 포장용 플라스틱 시트 제조업체인 H사는 월 급여 180만원을 내걸고 전문대졸 이상의 관리직 채용공고를 냈지만 아무도 응시하지 않아 조건을 변경해 다시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다.

실업률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지만 이같은 인력의 쏠림현상은 완화되지 않고 있다. 광주시가 최근 하남·첨단·평동산단 등 6개 산업단지를 순회 방문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구인난을 호소한 건수가 전체의 20%에 달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국가 전체로는 실업자수가 80만명을 상회하고 있지만 기업의 부족인력은 22만5천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중소기업의 부족인원이 21만2천명으로 전체 부족인원의 94.2%를 차지하고 있다.

하남·평동산단 사람 없어 발동동

그렇다면 구직난속 구인난을 해결한 방안은 없을까. 노동시장의 불일치로 인한 실업률 해소를 위해서는 취업 준비생들이 실력을 갖추거나 그렇지 못하다면 눈 높이를 낮춰 실리를 택해야 한다.

올해 초 한국전력에 입사한 강인석(25)씨는 지방대 출신이라는 약점을 오직 실력으로 극복하고 '신이 내렸다'는 공기업 공채에 합격한 사례다. 전남대 출신인 강씨는 대학 3학년때부터 교내 인력개발센터를 제집 드나들듯 하면서 취업정보를 수집하고 인턴십·아르바이트·자격증·공모전·봉사활동 등 취업에 필수라는 일명 '취업 5종 세트'를 모두 경험함으로써 한전의 관문을 뚫었다.

광주은행 신입사원 이미경(여·24)씨는 어려서부터 뚜렷한 목표를 정해 노력한 끝에 원하던 직업을 얻었다. 전남대 경영학과를 이번 달에 졸업하는 이씨는 "아빠가 근무하시던 직장이라 어려서부터 은행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됐다"며 "목표를 일찍 정한 만큼 실력을 쌓은 것이 효과를 본것 같다"고 말했다.

실력 기르든지 눈높이 낮추든지

이들이 구직난속에서도 실력으로 모두가 부러워하는 직장을 잡았다면, 박모(30)씨는 구인난을 이용해 실속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실리를 택했다.

순천에서 전문대를 나온 박씨는 한때 공무원시험을 준비했지만 2005년부터 광주의 한 직업훈련원에서 기계설비 교육과정을 마치고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등 관련 자격증 6개를 취득해 광주의 유망 중소기업의 인사노무팀에 자리를 잡았다.

박씨는 "급여는 월 평균 200만원이 약간 안되지만 실적 초과달성시 성과급 200%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마음에 들었다"며 "눈높이를 낮추고 실리를 택하기로 마음을 먹자 취업의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